

사회

도로변 소화전 제역할 못한다

불법 주정차 기승... 화재 땀 대형 인명피해 우려

안내 표시판조차 없고 택시승강장 들어서 있기도

도심 화재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소화전'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총 4000개의 소화전이 주요 도로와 보도의 접합 지점 또는 보도 끝 부분, 골목 등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기승을 부리면서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데 차량이 소화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애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화재는 진압 초기 1~2분이 중요한 만큼 자칫 물 공급이 조금만 늦어져도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화전 주변에는 소화전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를 강조하는 표지가 전혀 없고, 시민들도 아무런 의식 없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도로변상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다.

이는 소방차 1대에 보관된 소방수는 5분(2010년식 2600ℓ 펌프차 기준) 분량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재보충해 다시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같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 때문에 설치한 광주지역 소방용 시설은 지상식 소화전 2554개, 지하식 소화전 1316개 등 모두 3870개에 달한다.

하지만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지상식 소화전이 설치된 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정차해 있다. 소화전 인근에는 소화전 표지판이나 주정차금지 구역 안내판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소화전과 소방도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례는 5384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546건, 현지지정조치는 4838건 등이다.

실제로 지난 3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이면도로에는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높이 50cm·지름 20cm)이 설치돼 있는데도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2중·3중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돌아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높이 50cm의 소화전은 주차된 차량은 물론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서구 양동 저수조 시설은 주차가 가능한 흰색 선 위에 설치돼 있었고, 주차 금지 표지판은 없었다. 동구 광

산동 지상식 소화전은 바로 옆에 택시 승강장이 세워져 있었다.

주민 이모(36·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간선도로나 이면 도로 등에 설치된 소화전 옆에는 주차금지 구역 안내판 등이 전혀 없어 이곳에서 주차하는 것이 위험행위인 지 몰랐다"고 말했다.

광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작업하는 데 애먹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차량 주인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물면 되지만, 만약 차량이 파손되면 소방서에서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매번 차량 파손을 신경쓰느라 신속하게 조동조치를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여수고·나주고·남악고 자율형공립고 추가 선정

전남 5개로 늘어

여수고·나주고·남악고가 전남지역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선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1일 이들 학교가 교과부가 선정하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올해 2012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남은 목포고, 순천고에 이들 학교가 추가돼 자율형 공립고가 5개로 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리며 자율형 공립고 추가지정에 소극적으로 나서 기존 광주제일고,

광주고, 상일여고 등 3개교로 묶었다.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지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늘어난다.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교사로 100%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 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자공고 신입생 후기고와 동시배정 논란

"입학전 예비교실 차단"

광주시교육청이 2012학년도 고등학교 배정에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와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을 동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1개월 전에 합격자를 발표, 인터넷 수검감의 등 이른바 자공고가 실시했던 입학전 예비교실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1일 내년도 고교 입학전행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일고 등 자공고 3곳과 나머지 일반계고 39곳 합격

자 발표를 오는 12월29일 동시에 하고 학교배정 역시 개학이 임박한 내년 2월3일로 통일했다.

시 교육청은 을초 자공고 및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시행하려 했던 입학전 예비교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며 전면금지, 논란이 일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자공고와 일반계고를 함께 배정했다"며 "이는 혹시 모를 방학 중 예비교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등교사 임용 과목·규모 시험 6개월 전 예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 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and a map of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 Includes a table for sea temperature (바다) and a table for the next week's weather (주간날씨).

광주 2순환로 등 안전띠 안 매면 뒷좌석 탑승자도 범칙금·과태료

1일부터 제2순환도로, 무진로·빛고을로 일부 구간, 국지도 49호선 등 광주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다음달부터 제2순환도로 전구간, 무진로, 빛고을로 계수교차로~동림나들목 구간, 국지도 49호선 나주시 경

계~장성군 경계 구간 등 모두 68km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 본인인 안 매는 경우 범칙금을, 탑승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로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o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국제보청기) hearing aids. Features a cartoon knight on a horse and text promoting quality, safety,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Suncheon, and Mokpo branches.

Advertisement for KTA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featuring a smartphone interface and QR code. Text promotes 'Smart' services and 'All-in-One Service' (All-in-One Serv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for more details.